

PEOPLE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전남도민명예인권지킴이
인권 친화문화 확산 ‘앞장’

전남도는 20일 국립나주수출체원에서 제5기 도민명예인권지킴이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인권지킴이들은 향후 2년간 생활 속 인권침해 모니터링 강화로 인권 친화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워크숍엔 2025년 신규 위촉된 제5기 인권지킴이(위촉인원 22개 시군 137명)를 비롯해 22개 시군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5기 도민명예인권지킴이는 각 시군의 인권촉진자로서 △근무 현장의 인권문화 확산 △인권교육 참여 및 지원 △생활현장의 인권상황 모니터링 △도민인권보호관에게 정책 제안 및 의견 개진 등 역할을 한다. 워크숍에서는 인권 특강에 이어 도민인권보호관과 함께 노인, 여성, 아동, 이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 인권 현황 및 인권침해 사례 등을 공유하고, 생활주변 인권 침해사례 예방 등 인권옹호자로서 역할을 고민하고 토론했다. 이현규 기자



전북에꼬치다 담양점
나눔 실천 앞장…밀키트 기탁

담양군은 김시흥 전북에꼬치다 담양점 대표가 지역아동센터에 전북죽 밀키트 150인(12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에꼬치다 담양점은 담양을 메타프로방스에 위치한 전북 요리 전문점으로, 전북 꼬치와 전북잡스테이크 등 다양한 전북 요리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김시흥 대표는 “올해도 아이들을 위해 전북죽을 전달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홀로 계산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도 실천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매년 꾸준한 나눔 활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과 함께 맛있는 먹을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조성용 기자 jnnnews@



장성교육지원청, 인문학 기행 운영
전주 한옥마을서 소통 역량 강화

장성교육지원청과 장성학부모연합회는 최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인문학 기행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문학 기행에는 장성학부모연합회 인문학 독서교실에 참여 중인 학부모 20명이 전통과 문화이 융합된 전주에서 인문학적 통찰을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감성적으로 체험했으며, 한복 체험과 우리밀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직접 느껴보는 기회를 가졌다. 장성=이항범 기자 lnb6699@gwangnam.co.kr

“지속 가능한 나눔 실천…주는 삶이 더 큼니다”



“헌혈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입니다.” 광주시세계에서 30년째 근무 중인 박은희 패션팀 과장(사진)의 일상에는 특별한 습관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정기적인 ‘헌혈’이다. 단순한 기부나 참여를 넘어, 꾸준함으로 이어진 이 실천은 어느덧 삶

박은희 광주신세계 패션팀 과장, 사내 ‘헌혈왕’
희망배달·협력사 장학사업 등 ESG 활동 공감

의 일부가 됐다. 박 과장은 “처음엔 호기심과 건강관리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주는 기쁨’을 느끼며 참여하고 있다”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 마음 하나로 헌혈을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혈압, 체온, 혈액소 수치 등을 확인하며 자신의 건강도 점검하고, 동시에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광주신세계 사내에서 가장 많은 헌혈에 참여한 직원으로 꼽힌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그는 ‘지속 가능한 나눔’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그는 “이제 50대에 접어들면서 삶의 전환점을 맞고 있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헌혈은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박 과장의 ‘지속 가능한 나눔’은 광주신세계가 1995년 현재 지점으로 출범한 이래 30년간 실천해온 사회공헌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광주신세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발적 봉사활동과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이어왔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희망배달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임직원이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임직원의 자발성과 회사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공헌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이 캠페인은 기부 문화 확산과 더불어 노

사 공동의 ESG 경영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박 과장은 또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협력사 자녀 대상 장학사업을 꼽는다. 그는 “협력사 직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그분이 기뻐하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이런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매년 협력업체와 도급사 근무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박 과장과 같은 임직원의 따뜻한 실천 덕분에 광주신세계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표창, 광주시장 표창, 대한적십자사 감사패 및 최고명예장 등 다수의 사회공헌 유공 표창을 받았다. 명예보다 값진 건 그 속에 담긴 지속적인 실천과 진정성이다. 박은희 광주신세계 패션팀 과장은 “주는 삶이 받는 삶보다 훨씬 크고 깊은 만족을 준다는 걸 헌혈을 통해 배웠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 2막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함평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봉안식 거행

유해 17구 세종 추모의 집 임시 안치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유해를 수습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봉안식이 거행됐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월야면 월아리 521-9번지 일원에서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유해 17구에 대한 봉안식이 진행됐다. 봉안식에는 이상의 군수를 비롯해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관계자와 유족 등 40여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 추모사 낭독 등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해 발굴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월 사이 함평군 월야면·해보면·나산면 등지에서 발생한 ‘함평 11사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함평 11사단 사건은 전투 상황이 아님에도 국군 11사단이 빨치산 토벌을 명목으로 비무장 민간인 258명을 집단 학살한 국가권력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다. 발굴 조사 결과 총 16기의 분묘에서 유해 17구와 함께 허리띠, 단추 등 유품품 6점이 수습됐으며, 이 중 2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수습된 유해와 유품품은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되며, 향후 진상·화해를 위한 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라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상의 군수는 “이번 유해 발굴을 통해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분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세로 정의롭고 따뜻한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전남도는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도-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 클라우드소싱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동이 존중 받는 사회 만들자”…도, 유관기관과 간담회

세미나 통해 안전·권리보장 등 논의

전남도는 지난 20일 전남도립도서관에서 2025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도-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 클라우드소싱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선 아동학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관 기관, 현장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시군 아동학대 담당, 전남 소재 5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희선 아동권리보장원 연구위원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강연을 시작으로

도-시군-아보전 연계 활동 방안과, 남도아이지킴이단 활동성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남도아이지킴이단은 2023년 5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방 및 신고, 사각지대 아동 발견 시 음면, 시군에 복지서비스 연계 역할을 하기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전남 아동보호 민간 안전망이다. 최소영 전남도 여성정책지원관은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존재지만, 아직 두 우리의 손길이 닿지 못한 그늘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혜를 모아 실효성있는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농협 광주본부,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나눔 행사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 북구 건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과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 마칠석 브레드세븐 대표, 김수령 건국동장, 임영란 양산동장, 박병익 신용동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내 취약계층 120가



구를 대상으로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400만원 상당의 쌀과 가루쌀 빵을 전달했다.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도, 고향사랑기금 활용 공동빨래방 운영 ‘호응’

완도 청산국민체육센터서 현판식

전남도가 고향사랑기금 일환으로 운영 중인 마을 공동빨래방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19일 완도 청산면 청산국민체육센터에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된 ‘마을 공동 빨래방 공식 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현판식은 전남 고향사랑 실천의 출발을 알리며 전남도와 완도군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고향사랑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신의준 전남도의원, 청산면 부녀회, 이장단, 번영회, 주민, 공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

해 마을 빨래방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마을 공동 빨래방’은 기부자가 공감하고 도와 시군이 공동협력하는 고향사랑기금사업이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형 세탁물 처리를 위한 대형 세탁기 및 건조기를 구입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이 상생한 고향사랑기금부채 사업 일환으로 ‘마을 공동 빨래방’ 기금사업을 발굴, 올해부터 완도 청산면, 여수 남면, 강진 성전면, 함평을 등 4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한 올해 8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도와 시군이 상생해 고향사랑기금사업이 성공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동구, 지원1동 주민총회&마을예술축제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 지원1동 주민자치회(회장 기연서)는 21일 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마을예술축제를 열고 주민자치회 활동사항 보고, 2026년 마을의제 발표 및 14개 통 단합대회, 문화예술공연, 체험부스 등을 운영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